**미주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역할**

백신종 목사

서구권에서 개발된 선교용어나 선교학적 이해가 비서구권, 특별히 한국 선교계에 전달되면서 그 본래적인 의미가 곡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선교적인 교회*라고 번역되는 *Missional Church*가 그 중의 하나이다. 종종 이 용어가 지역교회를 효과적으로 동원해서 해외선교를 감당하도록 돕는 연구 정도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선교적인 교회는 보다 근본적으로 교회가 처한 사회적 현실속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책임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생겨난 용어이다.

이 용어가 북미주의 선교신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복음과 문화네트워크, GOCN 1998) 모임을 통해서 보고된 연구물의 출간을 통해서 였다.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연구보고서는 수많은 이민자들로 인해 북미주 도시에 모자이크된 다양한 소수민족의 증가현상(minority movement)을 선교적인 기회로 보고 북미주 교회의 적극적인 반응을 촉구하고 있다.

북미주의 교회는 도시지역에 일어나는 소수민족 운동 만큼이나 급격하게 주변화 (marginalized) 되었다. 이제 북미주 사회가 선교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도전에 크리스천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다 (Guder 1998, 2).

다시 말하자면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라는 용어는 다민족 사회안에 위치한 지역교회가 공존하는 다민족들과 특별히 소수민족을 향해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증가와 소수민족 공동체들의 하부집단화등 북미주의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통찰을 근거로 이 보고서는 북미주의 교회가 사회안에서 선교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선교의 책임을 선교사와 선교단체에 선교를 맡겨 놓고 선교사역을 위해서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교회의 책임을 다한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실 한 사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변화를 쉽게 감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유럽과 북미주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제 이곳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오랫동안 해외선교를 하고 돌아온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인 것이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영국의 경우 인도에서 23년간 신학교육과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레슬리 뉴비긴이 영국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The Other Side of 1984: Questions for the Churches (Newbigin 1983)*를 발간함으로 영국의 교회가 변화하는 영국사회에 선교적으로 대처 할 것을 주장했다. 그의 선구자적인 통찰과 선지자적인 목소리는 이후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에 새로운 관심을 촉발시켰고, 교회의 선교가 단지 해외선교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에 전략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 역시 교회가 처한 사회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로써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선교적인 본질을 회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수하는 일에 기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특별히 해외 한인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단일인종과 단일문화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1]](#footnote-1) 통념적인 생각을 21세기 하나님의 선교라는 측면에서 재 평가하고, 특별히 북미주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배경적인 서론**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회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일어나야 한다. 주님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가 한 사회에 정체되어 더이상 흘러가지 않고 고이게 되면 결국 그 사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훼세돔은 “교회는 자기가 받은 생명을 다만 전달할 수 있을뿐이다. 교회는 물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단언했다 (휘체돔 1980, 121).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주님의 복음을 세계곳곳에 증거하는데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2006년 캄보디아의 크메르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WC종족 선교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 크메르 사람들과 WC 종족은 역사적으로 오랜 반목과 반복되는 핍박의 역사를 지내왔다. 같은 사회를 살고 있지만 마치 면도날로 금을 그어 놓은 것 처럼 분명하게 구분된 사람을 살아가는 이 두 종족의 경계를 넘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어떻게 크메르 교회로 하여금 캄보디아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19개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현지사역을 하는 선교사로써 가졌던 과제요 한계였다.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는 사회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선교목사로 겪었던 하나의 경험은 이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2002년 몽골에서 사역하던 ㅎ선교사가 안식년으로 북미주에 오게 되었다. ㅎ선교사는 쉬지 않는 열정으로 북미주의 여러도시를 찾아다니며 몽골 이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몽골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마치 고구마 뿌리처럼 엮여 늘어가는 몽골사회의 관계구조는 쉽게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교회개척이 확장되어 갔다. 필자가 섬기던 한 미주한인교회에서도 ㅎ 선교사의 주도하에 몽골이민자들을 위한 교회개척이 진행되었다. 몇개월 간의 이민상담, 영어교육, 성경공부 사역을 통해서 몽골인을 위한 예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교회내의 예배할 장소를 얻지 못하고 인근 교회에 자리를 얻어 나가게 되었다.

타민족 선교는 사회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북미주의 한인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할 과제이다. 타민족 선교는 북미주의 한인교회가 그간 누려온 혜택의 일부이며 동시에 한인교회가 걸어온 이민의 역사이기도 하다.

**북미주 한인교회의 태동**

북미주 한인교회의 역사는 한인 이민의 역사만큼이나 길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한인들의 북미주 이민은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 협회(the Hawaiian Sugarcane Association)이 한인노동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되었다 (Kim 2008). 초기 선교사였던 호레이스 알렌은 이후 미국대표부의 공사가 되어 조지 존스(George H. Jones) 선교사가 시무하는 내리감리교회 인근에 노동자 모집을 위한 유민원 설치를 도와주었다. 노동자 모집 과정에서 존스 선교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천내리교회에서 지원자가 많이 나왔으며, 특히 안정수 장로와 평신도인 김이제는 첫번째 101명의 한인노동자들이 이주하던 갤릭호 선상에서 매일 예배를 인도하여 이역만리 길을 떠나는 이민자들에게 신앙을 심어 주었다 (Patterson 1994, 50; Kim 2008).

그들은 호노룰루에 정착하여 가장 먼저 예배처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하와이에 노동자로 이민 온 사람들은 이민온 교회 (migrant church)를 통해서 정착과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 한인교회는 초기부터 종교적인 예배시설이었을 뿐아니라 새로운 터전에 이주해온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한인사회의 중심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이다.

한인교회는 북미주의 정착과정에서 이민자의 애환과 정서를 모든 공동체가 체득해 왔다. 누구보다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써의 삶을 잘 이해하게 된 것이다 (출 22:21, 대 29:15). 북미주의 백인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움을 느끼던 한인교회는 하나 둘 예배당을 설립하면서 이민사회의 중심에서 성장해 왔다. 이러한 한인교회가 근래 그들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소수민족 이민자들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서 시대적인 선교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수 민족 교회를 돕는 한 사역자의 전언에 따르면 예배처를 구하는 가운데 한 한인교회에서 “타인종에게 교회를 빌려주면 고가의 기물들이 파손되고 손실될 우려가 있다”며 예배실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언제부터 한인교회가 ‘올챙이 시절’을 잊게 되었는가?

**디아스포라의 시대**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Rodriguez 2004, ix). 하나님께 불순종 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던 사건을 근거로 종교학자들은 인간의 역사를 “종교적 피난사” (history of religious refugees)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은 곧, 인류의 역사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적인 순례의 역사라는 의미일 것이다. 프레드릭 놀우드 (Frederick A. Norwood)의 지적대로 인간은 그들이 이주해 살았던 어느 곳에서 든지 “궁극적인 피난처요, 최종적 고향”(the final refuge, the final home)이었던 하나님을 발견했다(Norwood 1969, 22). 이것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충만하게 흩으시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지면에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원리이며 (창 1:28),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이었다 (창 9:1). 하지만 인간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거스려 이 땅에 바벨탑을 쌓았다 (창 11:4).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의 원리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신들이 쌓은 성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가인의 길을 따랐던 것이다 (창 4:17). 인간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영적인 눈을 가로막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탁월한 도구는 바로 ‘일상’이라고 하는 틀에짜인 기계적 삶의 구조이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도 정해진 일정대로 돌아가는 것 처럼 보인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도 인류의 역사는 진화하는 자연계 속에 영속할 것 처럼 여겨진다. 얼마나 미묘한 눈속임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인류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상에 흩으신다. 왜냐하면 인간은 새로운 환경속에서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놀우드는 이 모순적인 역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사람의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방황하며 살기로 한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자신의 고향을 발견하게 된다 (Norwood 1969, 22).

인간이 살아가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 버리게 되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성을 쌓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어” 자기영광 아래 숨어버린다 (창 4:17; 11:4). 하나님의 존재는 잊혀지고, 인간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하고 영원에서 현실로 내려 앉아 자신이 창조한 성과 영광을 만족하며 삶을 마친다. 이런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았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지면에 흩어지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만큼 이나 오래된 현상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21세기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노동시장의 세계화, 이민과 이주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디이스포라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다. 더 많고 다양한 타인종들이 북미주와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아시아와 남아메리카로 이주하고 있다. 세계 어느 곳도 더 이상 외부인과 접촉이 단절된 고립된 곳이 없다고 할 수 있다. UN의 인구분과 연구보고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1.9억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Anon. 2005). 이것은 매 35명당 1명이 자신이 태어난 사회와 국가를 떠나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주현상은 현대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더욱 확대될 것이며 해외 한인교회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역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다민족 사회속에서 선교적인 역할과 책임을 발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디아스포라 선교전략**

레슬리 뉴비긴이 본국선교를 외친후 지난 30여년간 북미주의 기독교 선교계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선교해야 할 책임이 바로 지역교회에 있음을 천명하고 교계의 정책과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복음과 문화네트워크(GOCN)의 선교적인 교회(missional church)에 관한 연구보고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의 모토대로 “모든 교회 공동체는 그들이 처한 사회적인 환경속에서 *사회문화적인 장벽*을 넘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시대적인 상황와 요청을 반영한 이러한 개념은 북미주의 선교연구와 선교전략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2007년 남침례교단의 남동대회(South East Convention)에서는 북미주를 해외선교지로 결정하고 국내에서도 선교사가 사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침례교단 각 대회로 파급되어 침례교 총회가 북미주를 선교지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교단의 결정은 많은 선교단체와 타교단에도 신선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6월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선교신학회 (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연례 학술대회에서는 “Colorful Initiation in Mission from North America”라는 주제로 북미주 선교의 총체적 연구를 위해서 이민교회의 선교를 연구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주민 선교, African-American 교회의 선교, 아시안-필리핀 교회의 선교, 한인교회 선교에 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2]](#footnote-2) 같은 해 10월에 남아프리카의 케이프 타운에서 개최된 로잔 3차 대회에서는 이주민 시대의 디아스포라 선교가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이후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이 회자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민교회의 소수민족 선교의 좋은 사례는 캐나다의 한 한인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의 영락교회(송민호 목사)는 한인교회 내에 인도차이나 각국의 언어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지원함으로 타인종 이민교회 개척을 선교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교회에는 이미 태국어, 버마어, 라오스어, 베트남어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며, 토론토에 거주하는 다양한 소수민족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3]](#footnote-3) 뉴욕주의 시라큐즈 한인교회는 보아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동과 아시아 권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민족교회 개척을 진행 중에 있다. 북미주의 한인교회는 이미 소수민족으로 이주민의 애환을 경험하고 교회공동체를 통해서 북미주의 소수민족으로써 한인사회 결속을 다져온바 있다. 이러한 이민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타인종을 향한 선교적인 교회개척을 시도한다면 북미의 어느 교회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4]](#footnote-4)

**이주민의 사회적인 특징**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 타지 혹은 타국에 살아가는 이주민들은 몇가지 공동적인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선교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복음증거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이주민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이주민들은 고향을 떠나면서 전통적인 문화와 종교적인 관습에서 자유로와 진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그가 종교적인 전통에서 자유로와졌기 때문일 것이다 (수 24:2, 창 11:31-32). 한국사회나 해외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모여 있는 이민자들은 이러한 면에서 선교 하기에 좋은 기회가 된다. 한국교회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2만4천 여명의 선교사를 전세계 180여개국에 파송했다. 그중 많은 선교사들은 전방개척 선교현장 보다는 교회개척과 제자양육이 용이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선교사가 전방개척 지역에 가서 전통과 관습에 묶여 있는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민자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문화나 종교관습에서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다. 그런면에서 한인교회가 위치한 북미주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전세계에서 몰려든 소수민족 이주민들은 선교적인 노력을 통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주민들은 서구문화의 새로운 세속적인 가치에 도전받고 있다. 문화적 가치와 충돌은 이민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문화로의 회기나 문화적인 절충 등을 야기 시키며 많은 경우에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인간은 자기문화를 간직하려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주민들은 초기에는 타문화권을 동경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점차 ‘여행자의 시기’가 지나게 되면 자기와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문화로 돌아가려는 성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가치에 도전이 되는 세속적인 가치를 만나게 되면 더욱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본국의 변화하는 문화보다도 더 근본적인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민족의 전통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은 말할나위 없다. 이주민의 초기 정착과정에 복음이 증거되고 민족문화에 상황화된 교회가 설립된다면 이주민 선교를 활기를 띄게 될 것이며, 이러한 소수민족 교회를 중심으로 본국선교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주민들은 사회정착과 적응의 과정에 안정감을 필요로 한다. 이주민으로 타문화권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류사회에서 받게 되는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서 이주민들은 인종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다른 인종과의 교류는 이주민의 사회적인 안정감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인사회가 타민족 소수인종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선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넷째, 이민사회는 세대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민자들을 향한 선교는 다양한 세대간의 특성을 고려해 전세대적인 선교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세대는 세대별 이민시기에 따라서 1, 2, 3세 등으로 구분해 왔다. 하지만 사회학자인 다니코는 “어린시절에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을 1.5세”라고 정의했다 (Danico 2004, 195). 민평갑 교수는 더 구체적으로 1.5세란 12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서 이민온 이민자를 가르킨다고 정의한다 (Min 2006, 358). 하지만 이민자들은 자신의 문화적인 친숙도에 따라서 더 세분화된 “소숫점 세대” (decimal generations, 1.2세 혹은 1.7세 등)를 만들어 사용한다. 더 나아가 1세는 본인의 의사로 이민온 성인을 가르키지만, 자식이나 배우자의 이민을 따라온 타의적 이민자들을 0.5세나 0.7세로 구분하면서 더 복잡한 세대간의 다양성을 구분하고 있다. 한인교회만 보더라도 다양한 세대간의 특징에 따라 사역이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민족 교회개척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타인종 소수민족 선교사역(Ethnic Minority Mission)은 성경적 당위성과 사회적인 필요성을 두루 가진 현대교회의 선교전략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흩으신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세상에 흩으셔서 그들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 북미주의 한인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성도들을 훈련하고, 타민족 소수민족 교회개척을 위한 사역의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인교회가 타민족 선교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언어와 문화 등을 들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타인종을 바라보는 한인사회의 관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홍석표 목사의 연구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지는 타민족과의 관계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면 그들의 관점을 알 수 있다.[[5]](#footnote-5)

**타민족과의 관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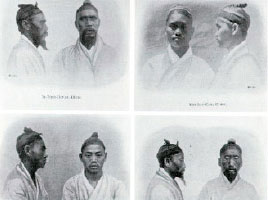
 북미주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민족을 보는 사회 문화적인 관점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간에 학자들은 한민족이 지난 오천년간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관점은 일제식민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면서 민족사관에 기초해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은 역사적인 형성과정에서 이민족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오늘날의 체질적인 특징을 갖게 된 것이다. 건국대 몸문화연구소의 이영아는 조선시대 서구 학자들의 연구보고서에 근거해서 “조선은 본래 다문화 사회였다”고 주장한다 (이영아 2010).[[6]](#footnote-6) 이영아는 같은 기사에서 프랑스의 고고학자 브르다레(E. Bourdaret)가 상트르(E. Chantre)와 함께 연구 발표한 논문인 “한국인, 그 인류학적 스케치” (『리옹 인류학회지』 제21권, 1902)에 수록된 한국인의 모습(그림 1)을 발표함으로 단일민족 단일혈통의 자긍심을 가진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림 1 조선시대 다양한 초상화

(이영아 2010)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때 모든 인간은 한 인간의 후손이다. 인종과 혈통은 오랜 시간 인간이 지구상에 다양한 모습으로 흩어져 살면서 발전해온 것이며, 지금도 인종적인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7]](#footnote-7) 인간사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발달되어온 민족과 혈통, 인종과 문화는 이제 성경적, 선교적인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어떻게 한인교회와 한인사회가 타민족과 보다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타문화 관계모델**

타민족과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먼저 아래 그림 2와 같은 네 개의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 수직으로는 동일한 그룹과 관계가 높은 경우(위)와 낮은 경우(아래), 수평으로는 다른 그룹과의 관계정도가 높은 경우(우)와 낮은 경우(좌)를 설정하면 네 가지의 관계유형을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자기민족과의 관계도 다른민족과의 관계도 높은 수준에서 맺고 있는 A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공생적인 관계(Sybiotic Reltionship)라고 할 수 있는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인 관계모델이다. 두번째는 자기민족과는 높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다른 민족과의 관계가 낮은 경우 (C)이다. 이러한 유형은 비판적/평가적 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문화중심성(ethnocentalism)이 강해서 다른 문화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거부한다. 다른 민족에게 복음은 전하지만 그들의 상황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하지 않는다. 반대로 자기민족과 관계가 낮고 다른 민족과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B유형인 체휼적 관계(sympathetic relationship)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다른 문화에 대한 평가없이 무조건 수용적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필요나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도움을 주어 의존성을 키우거나 스스로 다른 문화에 의존성을 갖게 된다. 사역의 모델은 사회정의 수준에서 타민족을 도와주지만 한인교회의 영성이나 복음증거의 노력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모든 관계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D 유형의 독립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자세가 이에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그림 2. 타민족 관계모델 (Baeq et al. 2011, 33)**  **Other-Group Inter-dependency** | |
|  |  | ***Low(-)*** | ***High(+)*** |
| **In-Group Interdependency** | ***High*** | C.  Critical/Evaluative Relationship  (Evangelical) | A.  Symbiotic Relationship  (Missional) |
| ***Low(-)*** | D.  Solitary Relationship  (Administrational) | B.  Sympathetic Relationship  (Social) |

각각의 유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독특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유형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어떠한 유형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타민족을 이해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보다 타인종의 소수민족 공동체와 선교적인 관계를 맺고 타민족 교회개척 사역에 동참할수 있을까?

**단기선교, 소수민족 선교의 기회**

한국교회는 1990년 이후 폭발적인 선교성장을 경험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된 지난 10년간에도 선교사의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선교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선교성장과 함께 해외여행증가, 경제성장, 주5일제 근무등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단기선교 역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교회가 주도해 가고 있으며, 한국교회와 북미주의 한인교회 역시 단기선교에 적지 않은 물적, 인적, 영적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홍석표 목사는 “단기선교와 타민족 관계변화 연구”를 통해서 단기선교 경험이 없는 한인들과 해외 단기선교를 통해서 타민족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간에 타민족 관계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주었다 (Sokpyo Hong 2010). 지난 15년간 단기선교에 관련된 사역을 섬기면서 연구한 결과에 비추어 볼때 단기선교를 통해서 높아진 타민족 친밀도는 평균 3주 정도 지속된다. 단기선교를 다녀온 후 3주간은 사역을 통해서 방문한 지역과 접촉했던 타민족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유지되지만, 3주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이러한 관심은 단기선교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단기선교를 통해서 높아진 타민족에 대한 친밀감과 선호적인 태도를 선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선교를 다녀온 3주 안에 지역교회에서 타민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타민족 사역을 개척하게 된다면 한인교회의 선교는 세계선교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며, 타민족 공동체와 단기선교 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인 선교사역의 기회들을 만들게 될 것이다.

**결론: 선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야 말로 타락 이후 하나님 앞을 떠나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역사의 핵심이다. 21세기의 교회는 새로운 선교환경을 맞고 있다. 선교의 전후방이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가 사회문화적인 장벽을 넘어 적극적으로 선교적인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한국과 미주의 한인교회는 해외선교에 전념하다가 오히려 본국사회가 타민족과 다른 종교에 의해서 잠식되어 시들어가는 서구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해외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다문화’라는 사회적 환경을 맞게 된 한국교회가 또다른 디아스포라를 향한 선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기도한다.

**참고서적**

Anon. 2005. UN statistics show migration as a dynamic and diversifying force in global development. *United Nations Press Release*. about:blank.

Baeq, Daniel Shinjong, Myunghee Lee, Sukpyo Hong, and Jonathan Ro. 2011. “Mission from Migrant Church to Ethnic Minorities: A Brief Assessment of the Korean American Church in Missio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9 (1): 25-37.

Danico, Mary Yu. 2004. *The 1.5 Generation: Becoming Korean American in Hawaii*. Honolulu,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Emetuche, Damian. 2008. Issues in Planting a Multicultural Church. In *Mosaix Global Network*, 1-16. Portland, OR.

———. 2010. Avoiding Racism in Starting New Congregations. In *Racism*, 75-81. Christian Reflection: A Series in Faith and Ethics. Waco, TX: The Center for Christian Ethics, Baylor University.

Guder, Darrell L., ed. 1998.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Hong, Sokpyo. 2010. Personal Attitude toward Other Ethnic Groups and the Potential Vvalue of Short-Term Mission. Unpublished manuscript.

Kim, Chan Hee. 2008. 초기 미주한인 이민역사 (Early History of Korean American Immigrant). http://missionmagazine.com/main/php/search\_view.php?idx=1871.

McGavran, Donald Anderson. 1955. *The bridges of God: a study in the strategy of missions*. New York, NY: Friendship Press.

———. 1990. *Understanding Church Growth*. Ed. C. Peter Wagner. 3rd ed.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Min, Pyong Gap. 2006. *Asi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Newbigin, Lesslie. 1983. *The other side of 1984: questions for the churches*. World Council of Churches.

Norwood, Frederick Abbott. 1969. *Strangers and exiles: a history of religious refugee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Patterson, Wayne. 1994. *The Korean Frontier in America: Immigration to Hawaii, 1896-1910*. Honolulu,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Rodriguez, Marc S. 2004. *Repositioning North American migration history: new directions in modern continental migration, citizenship, and community*. Rochester, NY: University Rochester Press.

Saulny, Susan. 2011. More Young Americans Identify as Mixed Race.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1/01/30/us/30mixed.html?\_r=2&ref=us.

이영아. 2010. 조선은 원래 “다문화 사회”였다.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776317.

휘체돔게오르크 F. 1980. *하나님의 선교*. 교회와 선교 시리즈 3.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 동질집단이론(Homogeneous Unit Principle)은 도날드 맥가브란 박사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어 교회성장학파의 주요한 이론이 되어 왔다. 1955년 The Bridges of God (1955)을 출간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에 모자이크된 소수민족안에서 종족운동 (people movement)을 통해서 교회개척할 것을 주장한 그는 1970년 Understanding Church Growth를 통해서 동질집단 이론을 확립하였다. 그의 주요한 사상은 “사람들은 인종, 언어, 혹은 계층적인 장애물을 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기원하는 경향이 있다”(*people like to become Christians without crossing racial, linguistic, or class barriers)* 진술에 잘 나타나 있다. [↑](#footnote-ref-1)
2. 필자는 미주선교신학회(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의 연례모임에서 한인교회 패널의 사회를 맡아 이명희, 홍석표, Jonathan Ro와 함께 “Mission from Migrant Church to Ethnic Minorities”라는 제목으로 한인교회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발제문은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2011년 1월호에 게제되었다 (Baeq et al. 2011, 25-37). [↑](#footnote-ref-2)
3. 북미주 교회들이 다민족교회(multi-ethnic church)에 대한 연구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어권 목회자들이 소수민족을 모아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로 사역하는 경우가 많다. 토론토 영락교회의 사례는 북미주의 주류교회의 모델과는 달리 각 소수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유지한채 하나의 교회로 모인다는 점에서 진정한 다민족교회라 할 수 있다. [↑](#footnote-ref-3)
4. 다민족 교회모델을 지지하는 목회자들과 선교학자들은 도날드 맥가브란 박사의 동질집단 이론을 비판한다. 교회는 하나의 인종, 하나의 문화가 아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Emetuche 2010; Emetuche 2008). 하지만 북미주의 다민족 교회는 여전히 영어와 북미주 교회의 종교문화를 고수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다민족 교회라고 보기 어렵다. 통문화교회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다민족 교회는 오히려 동질집단 이론과 피터 와그너 박사의 열린사회이론(Open Society Principle)을 통합한 모델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와그너 박사는 교회성장학파가 지향하는 교회는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공동체들이 서로를 향해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사회의 (병리적인) 분열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것” (culturally homogeneous congregations” but “open to all others” in which they reconcile social segregations)이라고 설명한다 (1978, 12). [↑](#footnote-ref-4)
5. 타민족과의 관계성 측정은 홍석표 목사가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서 진행한 설문연구이다. 필자와 홍목사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2011년 *계간 한국선교*(KMQ)지 봄호에 “단기선교를 통한 한국사회 다민족 인식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게제하였다. [↑](#footnote-ref-5)
6. 이 기사의 제목은 “조선은 본래 다인종 사회였다”라고 붙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 기사의 내용이 체질학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지 조선사회의 다문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때 조선사회 자체는 문화적인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지, 사회자체가 다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footnote-ref-6)
7.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북미주 사회의 이러한 인종적인 변화에 대한 문제를 신년기사로 다룬바 있다 (Saulny 2011). [↑](#footnote-ref-7)